

WINDOWS AND BALCONIES



by BLADEFREGA

창문과 발코니

THE SYSTEM · 10

원시인들이 수상 가옥을 짓기로 했을 때, 그것은 훗날 어느 이야기꾼이 대중에게 팔아먹은 것처럼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여자들이 이미 거기 있었다.

그리고 높이가 중요도를 정했다.

수상 가옥이 높을수록 존경도 높았다.

오늘날과 아주 비슷하다.

고층 빌딩에서는 관리인들이 1층을 차지한다.

다른 관리인들은 꼭대기 층을 차지한다.

건물의 주인들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듯 보이던 바로 그때, 여자들은 곧바로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그들은 두 가지를 원했다.

창문과 발코니.

첫 번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험담을 주고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친구들의 남편들과 이야기하며 눈에 띄기 위해서.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다.

출판사는 창문이다.

텔레비전은 발코니다.

집을 살 때가 되자, 층의 선택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사정 때문에 낮은 층에 만족해야 할 때면, 진실은 흔히 더 우아한 설명으로 바뀌었다.

고소공포증.

모두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낸 그런 증상 가운데 하나.

어떤 이들은 약을 팔았다.

또 어떤 이들은 해결책을 팔았다.

나중에 부는 측정 단위를 바꾸었다.

빌라.

수영장.

골프장.

개인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헬기 착륙장.

그리고 물론, 없어서는 안 될 가르소니에르.

생각을 버리는 오래된 대장간.

힘든 순간을 넘기도록 도와줄 알맞은 인력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

아하하하하.

그러나 건축으로의 이 짧은 나들이는 핑계일 뿐이다.

내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건축이다.

특히 한 가정 안에 지어진 그 형태.

모든 것이 허락되어야 하는 곳.

아무것도 놀랍지 않아야 하는 곳.

그런데도 첫 번째 비평가는 흔히 자식들이다.

자신들이 지켜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그들은 친구들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를 사랑해. 하지만 솔직히 그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하필이면 그가?

그러나 그는 그저 나의 아버지일 뿐이다.

그리고 발코니도 텔레비전도 갖지 못한 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쓴다.

결국,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